

국토교통부, “구성역 영업개시로 GTX-A 수서~동탄 완전 개통”

- 29일 개통한 GTX-A 구성역 찾아 시설 및 운영 상황 점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29일(토) 오전 GTX-A 구성역을 찾아 개통을 축하하며,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신설 역사의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.
 - GTX-A 구성역은 지난 3월 30일 최초 개통한 GTX-A 수서~동탄 구간에서 미개통된 역사였으나, 그간 영업시운전, 이용자 점검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, 금일 동탄역에서 출발한 첫 GTX 열차가 오전 5시 37분에 구성역에 도착하면서 본격 개통되었다.
- 금일 GTX-A 구성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, 환승통로,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고, GTX-A 구성역을 처음 이용하는 시민분들과도 소통하며, “GTX-A 구성역 개통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용인특례시 시민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GTX-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 - 또한, “GTX-A 구성역은 용인특례시의 플랫폼시티,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잇는 핵심 교통거점으로서 용인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개통 이후에도 복합환승센터 구축, 연계교통망의 지속적 확충 등을 직접 챙겨 GTX가 이끄는 수도권 공간 혁신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백 차관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모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한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”면서,
 - “하루라도 빨리 수도권 시민들이 GTX-A 노선을 온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, 올해 말 운정~서울역 구간의 적기 개통과 함께 GTX 삼성역에 대한 공기단축방안 강구 및 철저한 공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4. 6. 29.
국토교통부 대변인